

벌써 추석인데

It has come Thanksgiving Season

박영건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by Park Young-Kern

여름 내 쏟아 붓던 장대비를 맞으며 어수선하게 지내는 동안 올 한가위는 유난히도 빨리 찾아왔다.

어느 때 같으면 땀 흘려 곡식을 거두고 갈무리해서 겨울채비를 마친 농군들과 더불어 즐겁게 맞이하는 일년 중 가장 큰 명절이다. 그러나 지난여름 장마와 태풍에 큰 피해를 입은 이웃이 많아서 마음이 그리 편하지 못했다. 더욱이 우리 건축계의 형편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잠시 짬을 내서 얼마 남지 않은 2002년의 지나간 일을 되짚어 본다. 잘 해보자고 했던 새해 아침의 결의는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이대로 간다면 올해의 결산은 제대로 될 것인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몇 가지 일은 돌이켜 보아도 잘한 일이 있다. 반면에 석연치 못한 행동을 해서 생각할수록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금년이 다 가기 전에 꼭 정리해야 할 일들도 더러 있다. 그 가운데 지난 5월 25일 이른 아침에 '새로운 건축사협회 설립을 위한 100인 선언 대회'의 말미에 어정쩡하게 참석한 일이 있다. 모임의 성격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는 채 무례한 발언을 해서 행사장 분위기를 흐려놓았었다. 솔직히 작취미성이라 맑은 정신이 아니어서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적을 둔 지 벌써 스무 해나 지났다. 80년대 초에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입회 했으나 협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기를 찾지 못했다. 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직원들의 경력이나 회사의 실적 관리와 같은 사무적인 절차와 관련되는 것 외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다. 주로 한국건축가협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자원봉사 차원의 활동을 해왔었다.

일상에서 만나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 협회에 함께 가입하고 있는 회원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두 협회의 일에 같은 비중을 두고 깊이 관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에 와서 두 협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 동료나 직원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라도 하면 도리 없이 궁색한 처지에 물리게 된다.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건축사협회가 그동안 누렸던 독점적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불씨가 된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건축계가 함께 나서도 해결하기에 힘이 부치는 상황인데 조급이라도 불협화음이 생겨서는 큰일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설상가상인 것은 별도로 새로운 협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보면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 절차를 밟아서 별도의 단체를 결성하겠다면 억지로 막을 수 없다. 구성요소가 개인이나 집단이던 간에 자유롭게 원하는 단체를 선택해서 가입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 건축사의 입장에서는 국면전환을 통해 자신들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누구나 각자의 소견을 가질 수 있지만 정확한 상황판단을 근거로 한 것인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때에 성급한 흑백논리로 단순히 '편 가르기' 라는 인식을 잠시 유보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협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쟁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협회가 추구하는 바를 선명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군살빼기를 해야 한다.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내어놓아야 한다. 급류를 타고 있는 국제관계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건의 변화를 인정하고 '법' 때문이 아니고 '자'의 로 회원이기 원하는 지를 물어야 한다.

자칫 방심하면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자

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절실한 상황이지만 아예 방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건축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유효한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성격이 유사한 현재와 같은 형태의 건축단체에 중복해서 가입하는 관행부터 버려야 한다. 건축사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단체와 건축사사무소 단위로 가입하는 단체와 건축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단체로 건축계를 재편성하여야 한다. 그냥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 하자면,

새로운 입법과정을 거쳐 기존의 건축사협회를 건축사사무소협회로 개편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하도록 하자. 건축가협회는 건축행위를 문화활동으로 인식하는 전문가의 단체로서 건축사협회로 개명하여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자. 그리고 건축학회는 건설교통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등록을 이전하도록 하면 어떨까? 분야별로 복수의 단체가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대치국면을 조성하기보다 스스로 당당하면 된다.

전가의 보도로 쓸 수 있는 비책이 따로 있지 않다. 편견과 이집,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면 길이 보인다.

결실의 계절이다. 올 한 해에 뿌린 씨는 해가 가기 전에 부지런히 거두어 들이자. 아직 태양이 따스한 햇살을 비춰주고 있으니. ☺